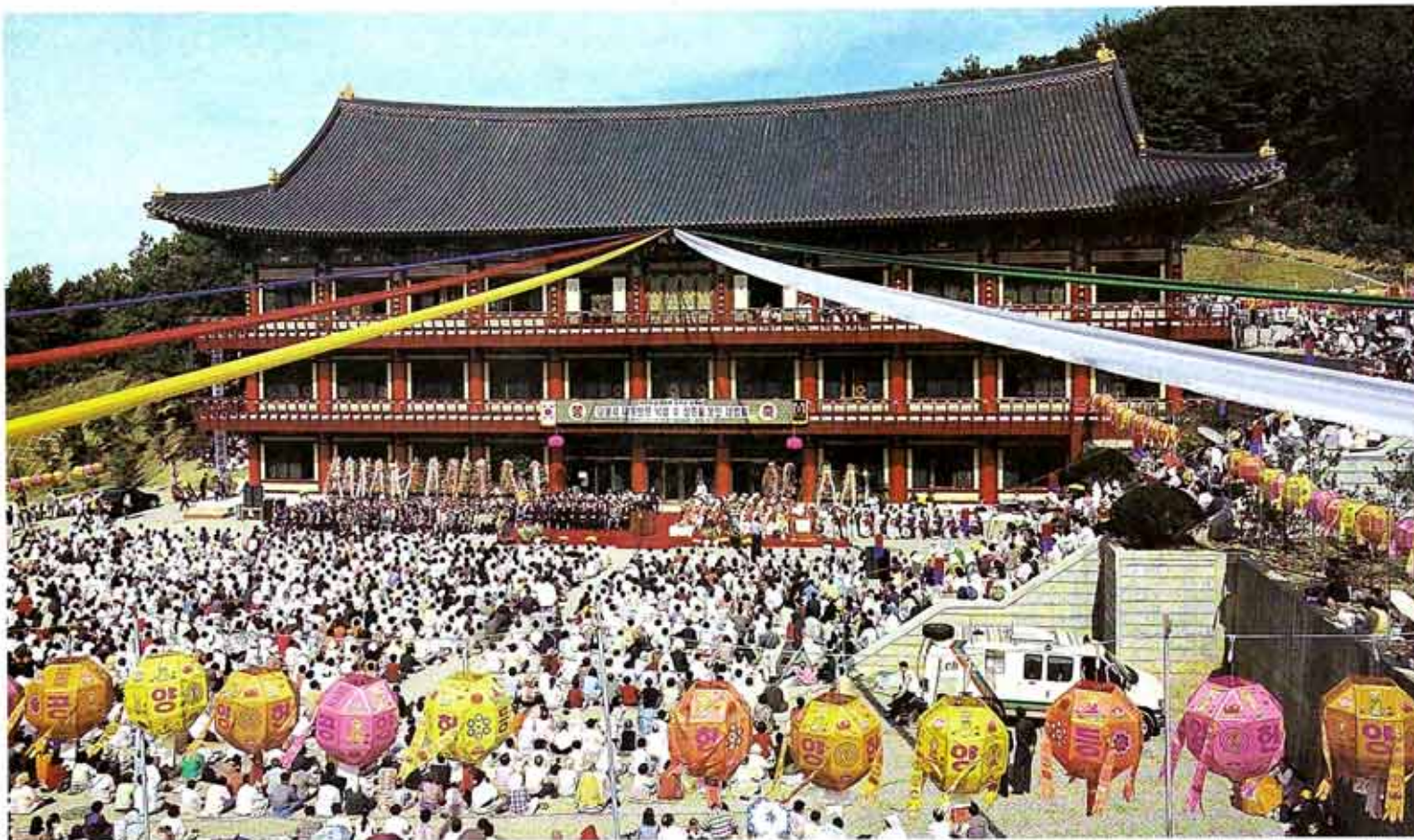


전통가람 양식 대광사 수도권 최대 사찰



대불보전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대법회

◀착공 4년만에 대불보전을 낙성하고 중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들과 정계 등 각계인사, 지역 기관장을 포함 사부대중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해 10월 7일 낙성식과 삼존불 봉안법회를 성대히 봉행했다.



◀대광사 10년봉사 조감도. 불사가 완공되면 대법당 대불보전 중각누각일주문 유취원 전통차집이 들어선 한국불교 전통양식의 수도권 사찰로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분당 일산 신촌 평촌 중동 수지, 92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 외곽에 형성된 이들 신도시 6곳에는 각각 많게는 40만~50만명, 적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살고 있다. 신도시 인구 중에는 공무원 교수 언론인 예술가 셀러리맨 등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종교단체들마다 교세 확장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각 종교단체들은 종교 전파를 위해 십 수 년 전부터 종교부지 확보 등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그 결과가 사찰(교당) 숫자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종교 시설이 총 780개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교회가 715개로 91.6%를 차지하고 사찰은 5.1%인 40개, 성당이 1.9%인 15개 등으로 나타났다. 사찰과 포교당을 합쳐도 교회의 1/18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수지 시민까지 합쳐 약 50만명 정도가 한 생활권에 살고 있는 분당은 규모면에서 신도시를 대표하고,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주목하게 된다. 천태종은 2대 종정 대광사스님의 뜻을 따라 20여년전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전통가람의 사격을 갖춘 사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서울 관문사 자리는 지역 여건상 전통가람이 들어설 수 없었고, 따라서 대신할 사찰 부지를

3년여 공사 끝에 지난해 3월 24일, 스님들을 중심으로 입주해 중무부터 보기 시작했다. 낙성법회와 삼존불 집안 법요식이 치러지기 전이었으나 곧이어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데다 지역 신도들의 조속한 개원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식 낙성법회도 하기 전이라 사찰 개원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음에도 신도들의 참여와 기도, 부처님오신날 등집수 등 적극적인 호응으로 대광사는 첫 발을 내디딘 신도시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다. 처음으로 가졌던 안거기도 낯시간에 1백여 신도들이 동참해 운영진행했고,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여법하게 치러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7일, 대광사는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불보전 낙성법회와 삼존불 봉안법회를

2011년 회향 10년 불사 추진중 세계 최대 청동관음상 법당 봉안

찾았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90년 분당 신도시 건립이 발표되면서 천태종은 분당 불국산 자리에 종교부지 7천평을 불허받았다. 지명 불국산(佛谷山) 그대로 부처님 계곡에 절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했다. 또한 중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다보아도 좌청룡과 우백호가 범상을 받은 격이라 찾는 대중이 늘 넉넉하게 살수 있다는 덕담들도 무성했다. 무엇보다 대광사가 자리한 구미동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광사 주지인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낙성 법요식을 다시 불사의 원년으로 삼아 10년 불사를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대광사는 오는 3월부터 전통 목조 건축양식의 대법당 건립 불사의 삼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법당은 213평의 건평에 2층으로 들어서며 내부에는 좌대 2m를 포함한 높이 17m의 청동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게 된다. 실내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으로는 세계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앞)과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3백평 규모의 대불보전에는 석가모니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봉안했다.

신도시 포교 신기원... 지역 문화 공간 활용

지역별로 보면, 인구 40만여명이 살고 있는 일산은 교회가 357개인데 반해 사찰은 21개이며, 39만8천여 명의 인구가 사는 분당은 교회 126개에 사찰은 10개에 불과하다. 양적 팽창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가 된다고는 볼수 없으나, 이같은 엄청난 수량의 차이는 불교계의 미약한 포교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포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같은 현실에서 천태종이 조성하고 있는 분당 대광사는 신도시에 세워지는 한국불교 전통가람 양식을 갖춘 최대규모의 사찰로 불교계 인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는 이미 도심이라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깊은 산속의 정취가 느껴진다. 이같은 지형적인 특혜가 맞물려 마침내 천태종 종단 차원에서 염원하던 수도권 안에 완벽한, 전통의 당우를 갖춘 가람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천태종은 서울 관문사를 낙성한 97년 곧바로 대광사 대불보전 기공 착공을 가졌다. 대불보전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1천2백평의 전통건축 양식의 대규모 법당이다. 3백평씩으로 된 각 층의 내부는 초현대식 시설로 갖추었다. 3층 법당에는 석가모니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삼존불로 봉안했고, 삼존불을 향해 오른쪽으로 상월대조사 진영을 모셨다.

최대 크기로 가목될 예정이며 일본 동대사 실내 불상보다 2m가 더 높다. 또한 현재의 대불보전 맞은편에는 신도회 등 각각의 신행단체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 다양한 법회를 볼 수 있는 대규모 불교회관도 세울 계획이다. 대광사는 신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포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대광사를 품고있는 불국산 정상까지 오르는 3가지 등산로와 교차점에 자리한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대광사를 향해가거나 지나는 불자와 일반인들이 마음편히 쉬 수 있게, 현재의 대불보전 옆으로 오두막집 형태의 2층 전통차집도 지을 계획이다. 시민



운덕 스님(대광사 주지)



“수도권 신도시가 갖는 문화 사회적 의미가 대단히 큼니다. 우리 종단은 일찍부터 신도시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교전략을 세워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분당 대광사는 그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상징 사찰입니다.”
대광사 주지 운덕스님(천태종 총

건립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레 신도시 포교에 명실상부한 '문예'가 되었다.

“대광사 불사는 2대 종정인 대총 대광사의 간접하신 권력으로 출발했습니다. 수도권에 한국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가람 양식의 사찰을 세워야 한다는 대총사님의 뜻을 받들어 10년전 이곳 대광사 부지를 불색했던 것입니다. 대총 종정 스님은 이 자리를 직접 서너 차례나 둘러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부지를 보시면서 큰 웃음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기쁨을 먼저 맛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운덕스님은 지난해 10월 대불보전 낙성법회때 당당하게 “제불조사가 찬탄하실 것”이라고 법문했다. “종단의 3대 지표가

“대중·생활 불교 거점사찰로”

무원장은 대광사 불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종단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이 주지라는 점만으로도 종단에서 바라보는 대광사의 위상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신도시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아무리 권력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나서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재력인력 등 포교를 위한 제반 상황이 다른 지역과는 달라 신도시 포교는 단차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사명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양 구인사가 총본산인 천태종은 서울 수도권에 거점 중심사찰

대중불교의 실현, 생활불교의 실현, 애국불교의 건립입니다. 이는 윤리도덕의 뿌리내림과 국민정신의 올바른 계도를 이뤄내는 것을 기반에 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전통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민족의 정신문화 또한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단의 3대지표를 실행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대광사는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신앙의 도량이 될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잠시 관광차원이라도 머물수 있는 공간이자 전통문화를 느낄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도재 스님(대광사 부주지)



최근 십수년 동안 불교계 건축 불사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종단으로 천태종을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천태종의 큰 건축불사 가운데 비중을 둔 서울 관문사, 구인사내 대조사전 건립과 현재 대광사 불사의 현장 진두지휘를 맡고있는 대광사 부주지 도재스

으니까요. 서울 관문사 불사때는 주위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일이 당시 어려움이었으면서도 잊지못할 불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태가 바뀌고 전법 포교 방식도 그에 발맞춰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실감했지요.”

지난해 10월 낙성법회 이후 첫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벌써부터 봉축 제등 행진을 위한 코끼리 장엄물을 제작하고 있는 대광사에서 도재 스님의 행진력을 엿볼 수 있다.

“처음 대광사를 개원하고 많은 신도들에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시다. 지역 가까이 절이 드물어 멀리 서울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다고요. 이곳은 지역특성을 먼저 잘 연구해 포교전략을 세

불사 귀재... “지역 특성 맞게 포교”

남(총무원 재무부장)은 그래서 ‘불사의 귀재’로 알려져 있다. “소임 때문에 불사를 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제 임무입니다. 불사기간이 17년으로 길었던 대조사전 건립이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나무 하나 하나부터 기와 한 장까지 오직 신심과 정성으로 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NHK방송국에서 초차 대조사전의 기와 제작등 불사를 취재해 갔을 정도였

워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곧바로 2층으로 된 전통차집을 현재의 대불보전 앞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대광사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광사를 조성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포교의 첫 단 계라고 강조하는 도재 스님은 지역에 맞는 포교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광사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포교의 첫 단추가 된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중요하고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방을 꼽고있다. 법회때마다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불편을 겪고있는 현실을 고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절에 올 수 있다는 부수적인 결실도 기대할 수 있다.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큰 그림으로 다시 10년 불사에 착수한 대광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가족과 함께”라는 포교전략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고 있다. 대불보전 낙성에 맞춰 대법당 자리 뒤쪽으로 1천여평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대지를 총 8천평 확보했다. 사찰버스 2대가 30분 간격으로 분당지역을 순회하며 신도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가족법회도 갖고 있다. ☎311715-3000